

# 전남도청 펜싱 개인·단체전 '금빛 찰르기'

### 전국펜싱선수권대회 두각 유진실 에페 개인전 우승 사브르 단체전 정상 등극 에페 단체전에선 준우승

유진실(전남도청)이 도쿄올림픽 여자 에페 단체전 은메달리스트 강영미를 꺾고 전국대회 1위를 차지했다.

유진실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양구 청춘체육관에서 열린 제23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전국남여펜싱선수권대회 에페 개인전 정상에 섰다.

유진실은 8강에서 이신희(강원도청)를 15-9로, 준결승에서 최효주(충북도청)를 15-13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국가대표 강영미(광주서구청)에 15-12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진실은 김향은·박소영·유단우와 에페 단체전

에도 출전해 전남도청 펜싱팀에 준우승을 안겨줬다.

도청팀은 준결승에서 경기도청에 45-37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하지만, 광주서구청과 결승에서 41-44로 패하며 아쉽게 은메달에 만족했다.

에페팀의 단체전 준우승의 한은 사브르팀이 풀어줬다.

김지현, 박다운, 손정민, 최세빈이 출전한 사브르팀은 준결승에서 서울시청을 45-38로 완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인천중구청과의 결승전에서 45-43으로 승리,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김용을 전남도청 펜싱팀 감독은 "올해 전국체전에서 일반부가 제외돼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이번 실업연맹전에서 우승과 준우승 등 좋은 성과를 내 기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땀방울을 흘려준 선수들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23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전국남여펜싱선수권대회에서 선전한 전남도청 펜싱팀. <전남도체육회 제공>

# 광주 채운토건 여자검도 전국대회 단체전 제패

### 봉림기대회 경주시청 꺾고 창단 이후 첫 단체전 우승

광주 채운토건 여자검도팀이 2021 봉림기 전국실업검도대회 여자부 단체전에서 우승했다.

채운토건은 최근 경남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 대회 여자부단체전에서 박빙 승부를 펼친 끝에 1-0으로 경주시청을 꺾고 창단 첫 우승을 일궈냈다.

채운토건은 지난해 창단했다.

채운토건은 4강전에서 괴산군청과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으나 대표전에서 허윤영이 도운지(괴산군청)를 1-0으로 제압, 결승에 올랐다. 대표전은 양 팀 대표선수 가운데 1명이 출전해 승패를 가리는 최종전이다.

채운토건은 경주시청과 격돌한 결승전에서도 1-1로 비겼으나 대표전에서 허윤영이 승부를 가리는 1점을 따내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채운토건 여자 검도팀은 올해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6월에 열린 제6회 회장배 전국실업검도선수권 대회 개인전 1, 2,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조경철은 이번 대회 4단부 남자개인전에서 준우승, 조관현과 최성준은 4단부 남자개인전 3위, 김민규는 남자통합 개인전 3위를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채운토건 검도팀과 광주시검도회 임원들. <광주시검도회 제공>

# 광주시청 양궁팀 신임 감독에 최승실 내정



광주시는 광주시청 양궁팀 신임 감독으로 최승실(50·사진) 대한양궁협회 사무처장을 내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박재순 전임 양궁 감독이 지난 10월 12일 사임함에 따라 최 사무처장을 신임 감독을 내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최 사무처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체고와 한국체대를 졸업하고 1996년 광주체고 양궁 감독을 시작으로 지도자 생활을 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6년 리우올림픽 국가대표팀 코치로도 활동하며 지도력을 검증받았다.

2016년 12월부터 대한양궁협회 경기부 차장을 역임한 후 2019년부터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대세' 박민지 시즌 7승+3관왕 확정 노린다

### S-오일 챔피언십 5일 개막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상금왕과 다승왕을 확정할 박민지(23·사진)가 대상 조기 확정을 노린다.

박민지는 5일부터 서울 동안 제주도 제주시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클럽 레이크·파인 코스(파72)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S-오일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에 출전한다.

박민지가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대상 수상자로 확정된다.

박민지가 우승하면 대상 포인트 2위 임희정(21)이 남은 시즌 최종전 SK월드스·SK텔레콤 챔피언십에서 우승해도 따라잡을 수 없다.

박민지는 일찌감치 상금왕과 다승왕을 확정했다.

KLPGA투어 사상 처음으로 시즌 상금 15억 원을 돌파했고 신지애, 박성현, 서희경에 이어 KLPGA투어에서 시즌 6승 이상을 따낸 네 번째 선수가 됐다.

대상은 '대세'를 입증할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이다.

박민지는 넉 달째 이어진 우승 갈증을 씻어내며 3관왕에 췌기를 바겠다는 복안이다.

신인 때 아깝게 신인왕을 놓치는 등 상복이 없는 임희정은 대상 경쟁에 마지막 불씨를 살리겠다는 각오다.

임희정은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시즌 최종전에서 역전 가능성이 있다.

임희정은 최근 5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 경쟁을 벌이며 10위 이내에 이름을 올린 상승세다.

장하나(29)는 시즌 3승과 함께 평균타수 1위



군히기에 나선다. 이다연(24)에 근소하게 앞선 평균타수 1위에 포진한 장하나도 이 대회 우승이면 평균타수 1위에 한 발 더 다가선다.

올해도 우승과 챔페 인연이 없는 최혜진(22)은 타이틀 방어와 시즌 첫 우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2019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최혜진은 지난해에는 대회가 약화후로 1라운드밖에 치르지 못해 1위를 하고도 챔피언을 인정받지 못해 대회 2연패를 울레로 미뤘다. /연합뉴스

# 비치핸드볼 여자 선수들 비키니 유니폼 안 입어도 된다

### 남녀 차별 잇단 지적에 국제핸드볼연맹 규정 변경

비치핸드볼에 출전하는 여자 선수들에 대한 비키니 유니폼 의무 규정이 삭제됐다.

국제핸드볼연맹(IHF)은 2일 "여자 선수들은 타이트하고 몸에 딱 붙는 반바지(short tight pants with a close fit)를 입어야 한다"는 비치발리볼 관련 규정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종전에 "하의 측면 폭이 10cm를 넘기면 안 된다"는 규정으로 사실상 비키니 유니폼 착용이 의무였던 것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이기도 했다.

또 미국의 가수 핑크는 자신이 노르웨이 선수단의 발금을 대신 내겠다고 밝히는 등 비치핸드볼 여자 선수들이 유니폼을 자유롭게 입을 권리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에도 여전히 남자부와 여자부 사이에 차별이 남아 있어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자 선수들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고 몸에 딱 붙는' 반바지를 입도록 한 반면 남자 선수들은 '너무 헐렁하지 않은'(not too baggy) 하의를 입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올해 7월 노르웨이 비치 핸드볼 여자 대표팀이 불가리아에서 열린 유럽선수권대회에서 비키니 유니폼이 아닌 반바지를 입었다가 벌금 징계를 받으면서 유니폼 관련 규정이 논란이 됐다.

특히 이 규정은 남자부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남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올해 10월에는 노르웨이를 비롯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5개국 스포츠 담당 장관이 IHF에 서한을 보내 이 규정을 바꿔 달라고 촉구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이터널스
2관	이터널스
3관	베놈 2: 팻 데이 비 카니지
4관	이터널스
5관	이터널스
6관	이터널스, 보이스
9관	이터널스, 고장난 론
7관	씨네커플
8관	씨네커플

고장난 론, 애프터: 관계의 함정  
용과 주근깨 공주, 당신은 믿지 않았지만  
극정판 평구는 뽀빠리 귀뿔! 나사왕국과 일추네 명의용사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BLACK**

블랙스트링 10주년 콘서트 Road of Oasis

일시 : 2021. 11. 20.(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7

**STRING**

GAC기회공연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_현악 4중주

일시 : 2021. 10. 30.(토) ~ 11. 06.(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